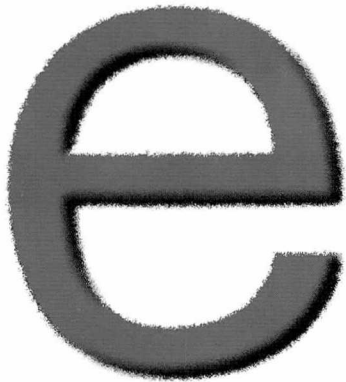


프린팅코리아 홈페이지 새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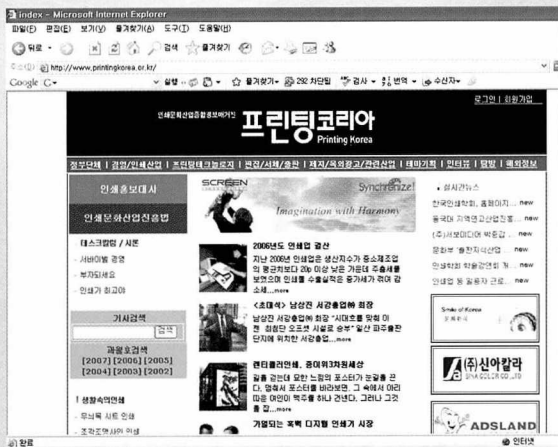
실시간뉴스 · 지난기사 검색 등 다양한 정보제공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프린팅코리아(발행인 홍우동)는 지난 4월 1일 인쇄인 누구나 손쉽게 인쇄문화산업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월간 프린팅코리아(www.printingkorea.or.kr)' 를 새롭게 오픈했다. 이번에 문을 연 홈페이지는 기존 월간 프린팅코리아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 수정, 보완해 만들어진 것으로, 기사 검색, 과월호 검색은 물론이고, 섹션별로 원하는 기사를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편집부 직원들이 서로 협조해 가면서 직접 개편한 것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새로워진 홈페이지 구성

인터넷 월간 프린팅코리아에 접속하면 강한 힘이 느껴지는 짙은 파랑 바탕에 하얀 고딕 글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인쇄문화산업종합정보 매거진 프린팅코리아' 라고 쓰여져 있는 이 글은 월간 프린팅코리아의 제호로 인쇄문화산업에 다양하고 올곧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 아래에 위치한 '정부/단체' 는 대한민국정부, 대한인쇄문화협회, 인쇄유관단체들의 기사를, '경영/인쇄산업' 은 인쇄사 경영과 인쇄산업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프린팅테크놀로지'에서는 산업의 새로운 기술 이슈들을 모았다. '편집/서체/출판', '제지/옥외광고/관련산업', '테마기획'에서는 각각 관련 산업별로 기사들을 정리했다. 이밖에 '인터뷰'에서는 그동안 프린팅코리아에서 만난 인쇄인들과의 생생한 대화가, '탐방'에서는 프린팅코리아가 만난 다양한 업체들의 정보를 담겨 있다.

특히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는 인쇄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올려 두었는데, 현재는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추진한 사업인 '인쇄홍보대사',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소개되어 있다. '인쇄홍보대사'에는 2005년 4월 김미화씨를 인쇄홍보대사로 위촉한 내용을,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2006년 5월에 있었던 공청회의 생생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인기리에 연재되었던 기사들을 따로 정리했다.

창간 이래 인쇄문화산업 전반에 날카로운 시선과 충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인협 오세익 전무의 '데스크칼럼'이 '데스크칼럼/시론' 코너에 정리됐다. 여기에는 데스크칼럼 이외에도 인쇄문화산업에 깊은 애정을 가진 많은 선각자들의 시론도 함께 실려 있다. 이외에도 인쇄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한 '생활속의 인쇄'와 과거 '인쇄신문' 기사들을 통해 현재 인쇄산업을 전망하는 '역사속으로'가 새롭게 정리, 게시되었다.

최신 기사들에 대한 주목성을 한층 높여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월간 프린팅코리아 홈페이지는 무엇보다도 비주얼적인 면을 강조해 주목성을 높였다. 화면 중간에는 신간호의 기획기사들이 메인 사진과 함께 노출되어 기사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우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 아래로 그 달에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기사들의 제목이 노출되어 있어, 클릭 한번으로 원하는 기사를 선택해 읽을 수 있게 됐다. 기사를

클릭하면, 그 기사의 내용과 함께 아래 목록이 표시되어, 관련 기사를 검색하기에 유용하다.

이외에도 과월호보기가 수월해졌다. 그동안 지난 기사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협회에 들러 과월호를 복사하거나, 구입하는 등의 번거로운 노력들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원하는 기사들을 기사검색란을 통해서 검색해 찾아 볼 수 있어, 보다 빠르게 원하는 기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다양한 기능 추가해 인쇄인들에게 도움줄 것

현재 홈페이지는 '실시간뉴스'와 기타 다양한 카테고리들로 인터넷 잡지, 또는 신문의 성격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구인구직, 중고장비매매, 이메일서비스, RSS서비스 등의 기능들을 추가해 인쇄문화산업 포털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실시간뉴스' 코너이다. 인쇄업계에서 일어나는 최근 뉴스들을 매시간 업데이트해 다양한 소식에 목마른 인쇄인들에게 신선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왼쪽 하단의 '인쇄기자재업체명단'은 클릭하면 관련 자료를 한글과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매달 관련 업계의 요청을 받아 업데이트해 제공되며 이외에도 인쇄업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만한 자료들을 정리해 게시할 계획이다.

유창준 편집국장은 "인쇄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풍부하고 전문적인 콘텐츠를 바탕으로 인쇄인 누구나 참여하고 꾸며나갈 수 있는 인쇄포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월간 프린팅코리아가 대한인쇄문화협회의 홍보는 물론이고, 인쇄인들의 정보교류를 위한 믿음직한 창구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오프라인 잡지와 함께 인터넷 웹진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월간 프린팅코리아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정삼 기자 sang@print.or.kr